



[라이프] 취식허용·대작개봉 영화관 2년만에 '복직' L2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와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환아 특수식 만들고, 어르신 건강 향상 앞장

“매일이 매일매일 속편한 세상 만들어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매일유업



모든 아기들에게 최고의 식품은 모유이지만, 모유는 물론 분유도 먹을 수 없는 아기들이 있다. 선천적으로 신진대사에 이상을 갖고 태어나는 '선천성 대사이상(유전 대사 질환) 환아들이다. 신생아 5만명 중 1명꼴로 태어나는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들은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거나 만들어지지 않아 단백질을 마음껏 섭취할 수 없다. 특히 아미노산 및 대사산물이 축적되면 운동발달 장애, 성장장애, 뇌세포 손상까지 이어지게 된다.

매일유업은 이러한 질환을 갖고 태어난 유아를 위해 특정 아미노산은 제거하고, 비타민·미네랄 등 영양성분을 보충한 특수 유아식을 자체기술로 개발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미노산 대사이상 질환용 특수 유아식을 생산하는 업체는 드물다. 국내에서는 매일유업이 유일하다.

수요가 극히 적어 운영하기 어려운 제품이기에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유업은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정신을 발휘해 제품을 개발했고 그 결과,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WHO(세계보건기구)의 코덱스(CODEX) 규격 및 한국인영양권장량에 맞추어진 8종의 선천성 대사 질환자용 식품을 개발해 현재 소아과학회 전문가들의 관리감독하에 전국의 환아들에게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2013년부터 '하트밀 캠페인'을 전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특수식 개발 환아 가족 응원하는 '하트밀 캠페인' 하트밀 굿즈 수익금 전액 환아 지원

가정의 달 맞아 입양원 등에 물품 기부 소외계층 어르신에 생필품 세트 전달 어르신 안부 묻는 우유배달 후원활동도

개해오고 있다.

하트밀 캠페인은 희귀 질환인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을 알리고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이다. 하트밀 로고는 마음을 뜻하는 '하트'와 음식을 뜻하는 '밀'의 합성어인 '하트밀'을 그릇에 담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자는 의미로 형상화했다.

작년 '2021 하트밀 캠페인'에서는 133명의 환아에게 하트밀 박스를 선물했다.

매일유업은 작년 12월 한달 동안 하트밀 굿즈로 응원 보냉백과 하트팩을 판매했고, 오픈 3주만에 준비 수량 총 1400개가 모두 판매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하트밀 굿즈 판매를 통한 수익금 전액은 환아들을 위한 하트밀 박스를 마련하는 데 쓰였다. 하트밀 박스는 환아 별 연령대에 맞는 의류·가방 등의 선물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도 먹을 수 있는 매일유업의 식음료 제품으로 구성되어 총 133명에게 전달됐다.

기존에는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환아들을 위한 외식 행사 '하트밀 만찬'도 함께 진행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하트밀 박스에 집중하기로 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일 매일유업은 어린이날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인 성가정입양원과 자ونا학교에 1000만원 상당의 제품과 현금을 지원했다.

이번 활동은 매일유업 봉사 동호회원들의 정기회비와 회사의 후원, 그리고 대표이사 개인의 기부가 더해지며 다른 기부보다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

성가정입양원에 매일유업 요미요미 음료, 간식 등과 함께 아이들의 운동화와 샌들 그리고 점심식사 등을 지원하고, 자ونا학교에는 검정고시 강사 교육비와 상하복장 등 유음료 제품을 전달했다.

매일유업 봉사 동호회 '살림'은 봉사와 나눔을 위해 2008년에 직원들 스스로 만든 봉사동호회로, 성가정입양원, 자ونا학교, 쪽방촌 등 소외계층과 시설을 찾아 물품 지원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1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환아에게 전달한 '매일유업 앤솔루트 하트밀 박스'
- 2 매일유업이 성가정입양원에 제품을 전달하고 있다. (좌측부터) 매일유업 봉사동호회 '살림' 유미연 회장, 성가정입양원 윤미숙 원장수녀님, 매일유업 고정수 홍보본부장.
- 3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제품을 전달하고 있다. (좌측부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이해경 부장, 매일유업 고정수 홍보본부장.
- 4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한 어르신안부물묻는우유배달 양말과 마스크 세트. /매일유업

하루 앞선 4일에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지역내 소외계층 어르신을 위해 락토프리우유와 생필품 세트 200개를 전달하기도 했다.

매일유업은 독거,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지원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코로나로 급식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을 위해 매일유업 락토프리 우유인 '소화가 잘되는 우유' 선물세트 200개와 마스크, 양말 선물 세트 200개를 어버이날을 맞아 선물로 전달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홀로 생활하시는 지역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덜 외로운 어버이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미약하나마 지역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로 전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이해경 부장은 "형편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께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 기쁘다"며 "매일유업처럼 지역내 기업의 후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런 후원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일유업은 2006년 우유속 유당을 제거한 '소화가 잘되는 우유'를 국내 처음 출시하고, 유제품과 함께 하는 건강 생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사)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사장 호응한 목사)'을 통해 독거 어르신의 건강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후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화가 잘되는우유 매출의 1%를 기부하는 '1% 약속' CSV 캠페인을 펼쳐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어르신 안부 묻는 우유배달 캠페인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위한 특수 유아식



▲'스털링 멀티골' 맨시티, 뉴캐슬 5-0 완파...EPL 우승 '성큼'
▲국내 복귀 앞둔 지소연, 첼시 홈 고별 전서 리그 우승 트로피 /사진 뉴시스

▲롯데 한동희, 생애 첫 월간 MVP 영광...김광현 뿌리치고 우뚝
▲NBA 필라델피아·달러스, 2패 뒤 2승...PO 2라운드 승부 원점



▲펜싱 국제대회 3년 만에 국내 개최... 13~15일 인천서 플리레 GP
▲한국 펜싱 남녀 사브르, 월드컵 단체전 나란히 우승 /사진 뉴시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